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 의사소통과 회복탄력성 및 인지된 경기력의 구조적 관계

양윤경¹ · 김동수² · 진형호^{3*}

1. 강남대학교, 강사 2. 동아대학교, 겸임교수 3. 신성대학교, 강사

요약

목적 이 연구는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 의사소통과 회복탄력성 및 인지된 경기력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방법 연구 참여자는 대학 태권도부에 소속된 겨루기 선수 288명(남자=203명, 여자=85명)이었다. 이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지도자 의사소통에서 비수용과 명령은 회복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용과 촉구는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회복탄력성은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지도자 의사소통에서 명령은 인지된 경기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촉구는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비수용과 수용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회복탄력성과 인지된 경기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는 수용과 촉구형 의사소통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면 비수용과 명령형 의사소통은 회복탄력성과 인지된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제어 지도자 의사소통, 회복탄력성, 경기력, 구조방정식모형

I. 서론

스포츠 맥락에서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수들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끌어내는 지도자가 없다면 승리를 위해 필요한 역량과 기술로 발전시키기 어렵다. 즉 선수와 지도자의 긍정적 관계는 훈련 성과를 높이고 성공적인 경기 결과를 도출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Yang, Lee, & Lee, 2019). 선수-지도자 관계의 질은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Jowett, Nicolas, & Yang, 2017; Kim, Kim, & Nam, 2019), 상호작용(Kang & Jeon, 2017), 신뢰(Kim & Kim, 2019), 의사소통(Nam, Lim, & Kim, 2018;

Ntoumanis, Qusted, Reeve, & Cheon, 2017) 등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그중에서 의사소통은 타인과 생각, 감정, 느낌, 정보 등을 공유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Wachsmuth, Jowett, & Harwood, 2017).

이는 목적, 전달 대상과 수단, 흐름의 방향 등에 따라 수용명령형, 비수용명령형, 비수용촉구형, 그리고 수용촉구형으로 구분된다(Watson, Hilliard, & Way, 2017). 이때 수용과 비수용은 지도자가 선수의 의견을 수용하는가 하지 않는가이고, 명령과 촉구는 지도자가 선수의 자율성을 지지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스포츠 환경에서 수용이나 촉구형 지도자는 선수와의 협력 과정에서 상호 간에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고 신뢰를 쌓아 관계를 발전 및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Wachsmuth et al., 2017). 반면

* jinhyeongho@naver.com

비수용과 명령형 지도자는 선수와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Ntoumanis et al., 2017). 예컨대 지도자가 선수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통제하면 오히려 동기와 욕구가 좌절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도자의 의사소통은 경청 태도와 전달 방식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으로 구분되어 선수에게 영향을 미친다(Han & Lee, 2017).

과거 한국에는 스포츠계에 만연한 승리지상주의로 인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선수를 지도하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Choi, 2020). 이러한 독특한 엘리트스포츠 문화로 인해 한국의 지도자들은 부정적 의사소통에 포함되는 비수용적 태도와 명령형 전달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스포츠계는 학생선수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스포츠 혁신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지도자의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태도가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방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지도자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Ntoumanis et al., 2017; Oh & Yang, 2019; Yang et al., 2019).

구체적으로 Ntoumanis et al. (2017)은 지도자를 대상으로 SDT(self-determination theory)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긍정적 의사소통을 교육했다. 그 결과, 지도자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욕구 만족과 태도 변화 등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Oh & Yang(2019)은 태권도 선수들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지도자의 의사소통이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그 외에도 지도자의 의사소통은 경기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운동열정(Gullu, Keskin, Ates, & Hanbay, 2020), 선수-지도자 관계(Davis, Appleby, Davis, Wetherell, & Gustafsson, 2018), 팀 응집력(Han & Lee, 2017) 등을 통해 경기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선수들은 경기력을 높이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 원인은 높은 자기 기대, 다른 사람들의 압력, 경기 결과, 그리고 부상 등 매우 다양하다(Hill, Den Hartigh, Meijer, De Jonge, & Van Yperen, 2018; Jang & Kang, 2019; Lim & Hong, 2021). 이때 회복탄력성이 낮은 선수들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탈진(burn out)이나 중도 탈락을 경험하게 된다(Gustafsson,

Sagar, & Stenling, 2017; Witt & Dangi, 2018). 반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선수는 자기관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역경을 극복하면서 성공적인 수행으로 나아간다(Sarkar, Fletcher, & Brown, 2015; So, 2016). 즉 선수들은 회복탄력성을 통해 동기나 자신감과 같은 내적 자산(inner assets)을 촉진하고 부정적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Fletcher & Sarkar, 2012). 이러한 선수들의 회복탄력성 수준은 지도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2022; Kim, 2021; Song & Lee, 2018).

이와 관련하여 Kwak(2019)은 선수들이 지도자의 의사소통을 명령형이나 권위적으로 인식할수록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반대로 White & Bennie(2015)는 선수의 회복탄력성 발전과정을 탐색한 연구에서 지도자들의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도자의 지지적 의사소통은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훈련 분위기를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선수의 회복탄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지도자의 긍정적 의사소통이 선수들의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체·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향상된 선수의 회복탄력성은 결국 경기력과 성공적인 수행으로 연결된다.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변인(긍정마인드셋, 집중력 유지, 인지과정 통제 등)들은 선수들의 기술적·전략적·심리사회적 자원을 강화하여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Brown, Butt, & Sarkar, 2020; So, 2016; Yang, Shin, & Kim, 2015). 이와 더불어 Kim(2021), Park & Huh(2020) 그리고 Yang et al. (2019)은 선수들의 회복탄력성과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특히 Yang et al.(2019)은 태권도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사회성 기반 회복탄력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지지가 선수의 운동수행과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사회성 기반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생선수는 뛰어난 타인과의 소통, 공감, 자아 확장력을 바탕으로 타인의 도움과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이를 경기력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정리하면 선행연구들은 지도자의 의사소통을 선수의 회복탄력성과 인지된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Buning & Thompson, 2015; Ntoumanis et al., 2017; White & Bennie, 2015; Song & Lee,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태권도 연구에서 세 변인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태권도 겨루기는 지도자와 선수가 훈련이나 시합 상황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전략과 전술을 수행해야 하는 종목 특성이 있다(Kim, Choi, & Hwang, 2022). 특히 대학선수는 신체적·기술적 기량이 거의 완성단계에 도달해 있으므로 지도자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한 전략과 전술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eo, 2013). 이를 고려할 때 대학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지도자 의사소통, 회복탄력성, 인지된 경기력이 구조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 태권도 지도자들이 선수와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지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스포츠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추구하는 대학 태권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 의사소통과 회복탄력성 및 인지된 경기력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가설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 의사소통(비수용, 명령, 수용, 촉구)은 회복탄력성(사회성, 통제성, 긍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A1-1 ~ A4-3). 둘째, 회복탄력성(사회성, 통제성, 긍정성)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B1 ~ B3). 셋째, 지도자 의사소통(비수용, 명령, 수용, 촉구)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C1 ~ C4). 가설에 따른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2022년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고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 태권도부에 소속된 겨루기 선수들이었다. 구체적으로 302명이 참여하였으나 불성실 응답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14명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연구 참여자는 288명으로 남자 선수 203명(70.5%), 여자 선수 85명(29.5%)이었고, 학년은 1학년 110명(38.2%), 2학년 78명(27.1%), 3학년 57명(19.8%), 그리고 4학년 43명(14.6%)이었다. 그중 216명(75.0%)은 전국 대회 입상경력이 있었다(Table 1).

Table 1. 연구 참여자 특성

구분		n	%
성별	남자	203	70.5
	여자	85	29.5
학년	1학년	110	38.2
	2학년	78	27.1
	3학년	57	19.8
	4학년	43	14.6
전국대회 입상경력	있다	216	75.0
	없다	72	25.0
Total		2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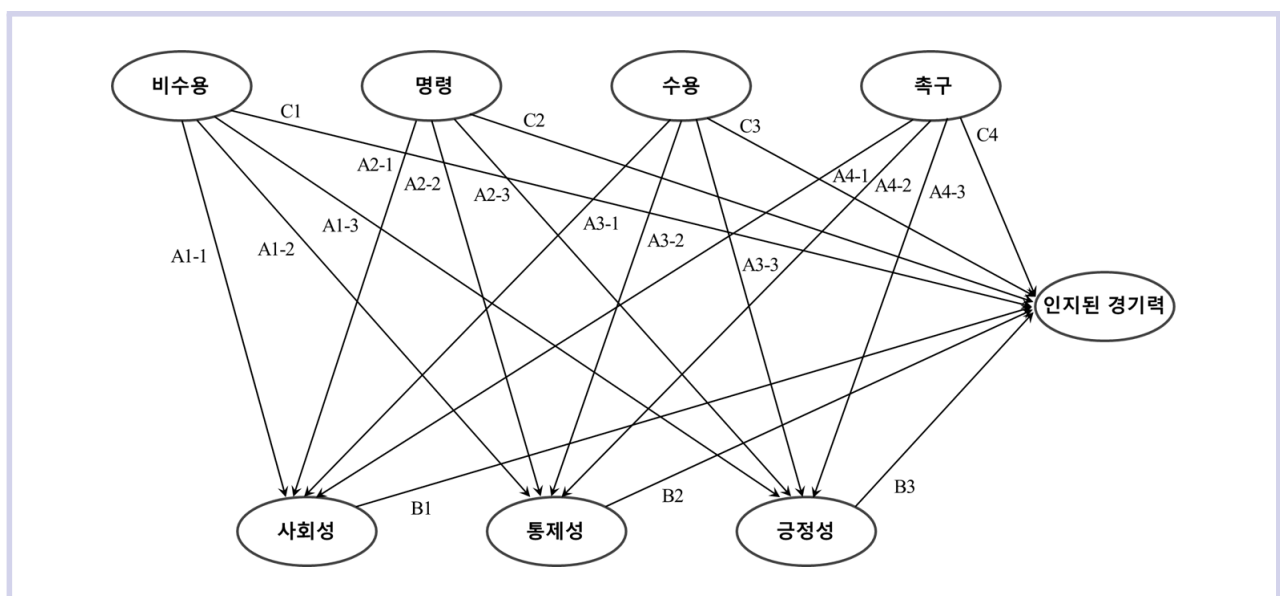


Figure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과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Watson et al. (2017)이 개발하고 Han & Lee(2017)가 선수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지도자의 경청 태도를 측정하는 수용 5문항, 비수용 3문항과 의사전달 방식을 측정하는 명령 4문항, 촉구 6문항으로 총 4요인 18문항을 포함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아니다~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해당 척도는 CFA 과정에서 타당성을 저해하는 수용 1문항, 촉구 3문항이 제거되었다. 제거 후 모형적합도는 $\chi^2/df=1.083$, CFI=.996, TLI=.995, RMSEA=.017, SRMR=.028로 나타났고, β 값은 .703~.828로 확인되었다.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에서는 수용 .835, 비수용 .807, 명령 .825, 그리고 촉구 .773으로 나타나 양호했다.

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Reivich & Shatte(2002)가 개발하고 Shin, Kim, & Kim(2009)이 국내 문화에 맞게 타당화한 척도를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감정과 충동의 통제력을 측정하는 통제성 3문항, 낙관성이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긍정성 3문항, 대인관계와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사회성 3문항으로 총 3요인 9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아니다~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해당 척도의 CFA 결과 모형적합도는 $\chi^2/df=1.189$, CFI=.997, TLI=.996, RMSEA=.026, SRMR=.025로 나타났고, β 값은 .697~.915로 확인되었다.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에서는 통제성 .880, 긍정성 .813, 그리고 사회성 .92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3) 인지된 경기력

인지된 경기력은 Mamassis & Doganis(2004)가 개발하고 Yang et al.(2015)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단일요인 8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아니다~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해당 척도의 CFA 결과 모형적합도는 $\chi^2/df=3.017$, CFI=.981, TLI=.971, RMSEA=.084, SRMR=.025로 나타났고, β 값은 .759~.838로 확인되었다.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에서는 .938로 높게 나타났다.

3. 조사절차

이 연구는 직접 설문지를 배포·수집하는 방식으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대학교 태권도부의 감독 또는 코치에게 유선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학교 및 훈련장에 직접 방문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들(대학 태권도 선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응답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받았다. 또한 불성실한 응답을 예방하기 위해 비밀보장과 자료 보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들은 자기보고식(self-report) 검사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수거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코딩하고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과 AMOS 23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하여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왜도(skewness), 그리고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고, 왜도와 첨도는 정규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때 왜도는 절대값 3 이하, 첨도는 절대값 8 이하일 때 정규성을 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5).

둘째, 세 가지 변인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r 계수를 산출하였다. r 계수는 +값일 경우 정적 상관, -값일 경우 부적 상관이며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아가 하위요인 간 상관은 .8 이하일 때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형적합도는 χ^2/df , CFI, TLI, RMSEA, 그리고 SRMR을 사용하였고, χ^2/df 는 3 이하일 때, CFI와 TLI는 .9 이상일 때, 그리고 RMSEA와 SRMR은 .08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단

하였다(Kline, 2015). 그리고 가설 채택 여부는 경로계수는 비표준화계수(B)와 표준화계수(β)를 산출하여 경로계수의 유의수준에 따라 결정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그리고 첨도를 확인하였다(Table 2). 모든 하위요인의 평균 범위는 최소 2.27점에서 최대 3.85점이었고, 표준편차의 범위는 최소 .70점에서 최대 1.01점이었다. 또한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알아본 왜도의 범위는 -.94 ~ .80이었고 첨도의 범위는 -.09 ~ .72로 나타났다. 즉 왜도와 첨도는 기준치(왜도 3 이하, 첨도 8 이하)를 충족하여 정규성을 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5).

Table 2. 기술통계 결과

구분		M	SD	왜도	첨도
지도자 의사소통	비수용	2.27	0.98	0.80	-0.09
	명령	2.45	0.79	0.63	0.05
	수용	3.71	0.70	-0.71	0.65
	촉진	3.73	0.72	-0.59	0.50
회복 탄력성	사회성	3.85	1.01	-0.94	0.42
	통제성	3.62	0.82	-0.63	0.48
	긍정성	3.63	0.71	-0.37	0.72
경기력		3.63	0.71	-0.68	0.39

Table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1. 비수용	1							
2. 명령	.34**	1						
3. 수용	-.41**	-.43**	1					
4. 촉진	-.38**	-.40**	.42**	1				
5. 사회성	-.41**	-.43**	.44**	.41**	1			
6. 통제성	-.42**	-.44**	.45**	.49**	.39**	1		
7. 긍정성	-.40**	-.42**	.46**	.44**	.39**	.40**	1	
8. 경기력	-.48**	-.51**	.53**	.54**	.52**	.54**	.53**	1

** $p < .01$

2. 상관관계

각 변인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3). 구체적으로 모든 하위요인은 .01 수준에서 정적 또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촉진과 경기력의 상관은 $r = .538(p < .01)$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수용과 긍정성의 상관은 $r = -.396(p < .01)$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모든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는 .8 이하로 다중공선성에 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구조방정식모형

1) 모형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χ^2/df 는 1.233, CFI는 .982, TLI는 .980, RMSEA는 .029, 그리고 SRMR은 .035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각각의 기준값을 충족하였으므로 매우 좋은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Kline, 2015).

2) 가설 검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4). 그 결과 가설 A와 B는 모두 채택되었지만, 가설 C는 C2와 C4만 채택되었고 C1과 C3는 기각되었다. 각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의사소통은 회복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비수용은 사회성($\beta = -.185, p < .05$), 통제성($\beta = -.173, p < .05$),

Table 4.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결과

가설	경로	B	β	$S.E.$	t	검증 결과
A1-1	비수용 → 사회성	-.210	-.185	.083	-2.520*	채택
A1-2	비수용 → 통제성	-.159	-.173	.067	-2.376*	채택
A1-3	비수용 → 긍정성	-.113	-.170	.051	-2.204*	채택
A2-1	명령 → 사회성	-.288	-.221	.097	-2.976**	채택
A2-2	명령 → 통제성	-.195	-.185	.078	-2.514*	채택
A2-3	명령 → 긍정성	-.119	-.156	.059	-2.001*	채택
A3-1	수용 → 사회성	.294	.203	.111	2.645**	채택
A3-2	수용 → 통제성	.195	.166	.089	2.186*	채택
A3-3	수용 → 긍정성	.245	.286	.071	3.468***	채택
A4-1	촉구 → 사회성	.269	.186	.114	2.354*	채택
A4-2	촉구 → 통제성	.401	.341	.095	4.210***	채택
A4-3	촉구 → 긍정성	.215	.252	.072	2.991**	채택
B1	사회성 → 경기력	.094	.142	.039	2.433*	채택
B2	통제성 → 경기력	.116	.143	.054	2.137*	채택
B3	긍정성 → 경기력	.163	.146	.079	2.066*	채택
C1	비수용 → 경기력	-.092	-.122	.048	-1.907	기각
C2	명령 → 경기력	-.120	-.139	.056	-2.136*	채택
C3	수용 → 경기력	.120	.126	.066	1.825	기각
C4	촉구 → 경기력	.199	.208	.073	2.712**	채택

* $p < .05$, ** $p < .01$, *** $p < .001$

긍정성($\beta = -.170$, $p < .05$)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명령은 사회성($\beta = -.221$, $p < .01$), 통제성($\beta = -.185$, $p < .05$), 긍정성($\beta = -.155$, $p < .05$)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용은 사회성($\beta = .203$, $p < .01$), 통제성($\beta = .166$, $p < .05$), 긍정성($\beta = .287$,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촉구는 사회성($\beta = .186$, $p < .05$), 통제성($\beta = .341$, $p < .001$), 긍정성($\beta = .252$, $p < .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대학선수들의 회복탄력성은 인지된 경기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사회성($\beta = .142$, $p < .05$), 통제성($\beta = .143$, $p < .05$), 긍정성($\beta = .146$, $p < .05$)은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의사소통은 인지된 경기력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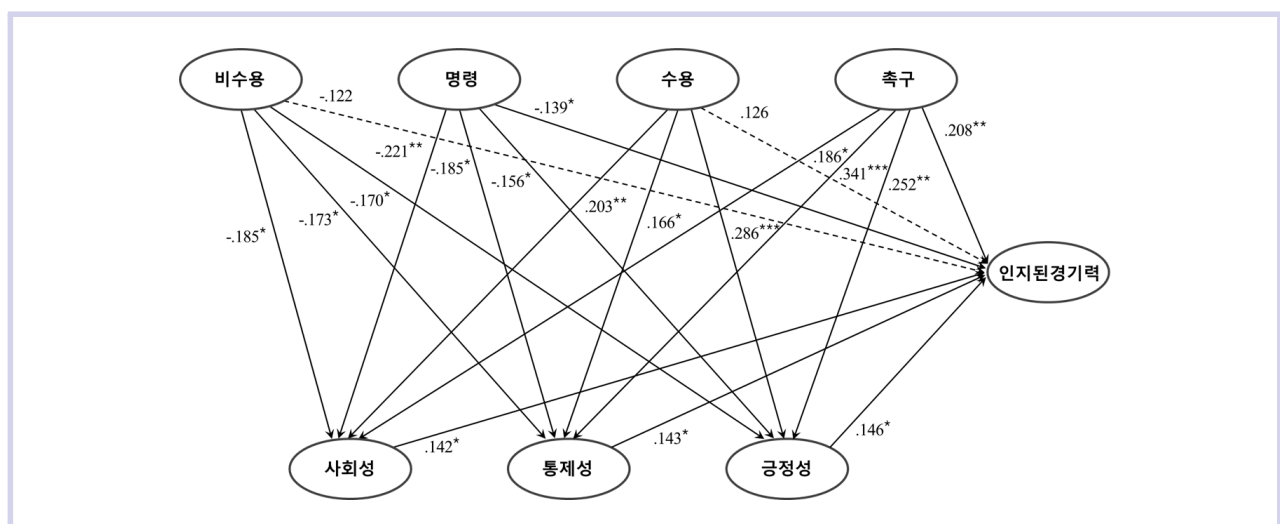


Figure 2.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결과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비수용($\beta = -.122, p < .05$)과 수용($\beta = .126, p < .05$)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명령($\beta = -.139, p < .05$)은 인지된 경기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촉구($\beta = .208, p < .01$)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 결과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IV. 논 의

이 연구는 대학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의사소통(비수용, 명령, 수용, 촉구)과 회복탄력성(사회성, 통제성, 긍정성) 및 인지된 경기력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 태권도부에 소속된 겨루기 선수 288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도출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의사소통은 회복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중 수용과 촉구는 회복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용과 명령은 회복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도자 의사소통과 선수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Gould & Weinberg, 2023; Kwak, 2019; Song & Lee, 2018; White & Bennie, 2015). 특히 대학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한 Kwak(2019)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자가 선수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회복탄력성은 향상되고, 선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제할수록 회복탄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지도자의 수용과 촉구형 의사소통이 선수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이유는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성된다(Deci & Ryan, 2012). 여기서 자율성은 자신이 선택과 행동의 주체가 될 때 충족되고, 유능성은 스스로 능력을 입증하거나 유지 및 발전시킬 때 충족되며, 관계성은 집단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관심을 주고받을 때 충족된다(Bae, 2023). 이렇게 충족된 기본심리욕구는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Deci & Ryan, 2012). 즉 지도자가 수용과 촉구형 의사소통을 사용할수록 선수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되어

회복탄력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선수와 의사소통할 때 본인의 말과 행동이 선수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회복탄력성은 인지된 경기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회복탄력성의 사회성, 통제성, 긍정성은 모두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Meggs, Golby, Mallett, Gucciardi, & Polman (2016)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선수일수록 경기 상황의 고난과 역경을 잘 대처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선수의 회복탄력성과 경기력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Kim, 2021; Kim & Bang, 2022; Park & Huh, 2020; Yang et al., 2019). 따라서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회복탄력성은 인지된 경기력을 높이는 중요한 선행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 태권도 선수들은 성적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 진로 등 다양한 역경에 노출되어 있다(Heo, Kim, & Ko, 2020).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야만 선수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원하는 실업팀으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회복탄력성이 낮은 선수는 탈진이나 중도탈락을 경험하지만(Gustafsson et al., 2017), 높은 선수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Sarkar et al., 2015). 그 이유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선수일수록 정서조절을 잘하고 성취목표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Kim & Kim, 2020). 즉 회복탄력성이 높은 선수는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동기를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선수들이 스포츠 상황에서 크거나 작은 성공적 경험을 자주 경험할수록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evada et al., 2012). 이를 고려할 때 지도자는 선수들이 성공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훈련할 때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나 전술을 제시하여 선수가 연습을 통해 스스로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회복탄력성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여 인지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의사소통은 부분적으로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도자의 의사소통에서 명령과 촉구는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비수용과 수용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지도자 의사소통 중 명령은 인지된 경기력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축구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자의 의사소통과 경기력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Gullu et al., 2020; Ntoumanis et al., 2017; Oh & Yang, 2019; Yang et al., 2019). 나아가 지도자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선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기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Choi, Lee, & Yeo(2013)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들은 지도자의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지도자와 선수 간에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 경기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지도자가 선수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인지된 경기력은 향상되고, 통제할수록 인지된 경기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청년기의 대학 태권도 선수로 청소년기의 초중고 선수들보다 자아개념이나 가치관, 그리고 신체적·기술적 기량 등이 성숙하다(Seo, 2013). 이를 고려할 때 지도자들의 경청 태도인 비수용과 수용보다 자율성 지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명령과 축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측된다. 가령 팀의 결정권자인 지도자가 명령형으로 통제하는 성향이 강하면 아무리 성숙한 대학선수라도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형 의사소통은 선수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중도탈락이나 훈련 만족도를 낮춘다(Kwon & Lee, 2006). 반면 축구형 의사소통은 선수들의 신뢰를 얻고 집중력을 높여 훈련 만족도를 높인다(Ahn, 2015). 이에 따라 축구는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명령은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고려할 때 대학선수들의 지도자는 명령형보다 축구형 의사소통을 활용할수록 그들의 인지된 경기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종합하면 대학 태권도 선수들은 지도자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회복탄력성과 인지된 경기력이 높아진다. 특히 기본심리욕구 관점에서 선수의 자율성 지지와 관련된 명령과 축구의 영향력은 대학선수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회복탄력성은 인지된 경기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스포츠 현장에 만연해 있던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의사소통의 부정적 영향과 최근 스포츠 혁신에서 추구하는 민주적 의사소통의 긍정적 영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대학 태권도부의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회

복탄력성과 인지된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긍정적 의사소통(수용과 축구)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도자들의 긍정적 의사소통이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혼란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지도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 의사소통(비수용, 명령, 수용, 축구)은 회복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가설 A1-1 ~ A4-3 채택). 지도자 의사소통에서 비수용과 명령은 회복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수용과 축구는 회복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선수의 회복탄력성(사회성, 통제성, 긍정성)은 인지된 경기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가설 B1 ~ B3 채택).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은 모두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도자 의사소통(비수용, 명령, 수용, 축구)은 인지된 경기력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가설 C2, 4 채택, C1, 3 기각). 지도자 의사소통에서 명령은 인지된 경기력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축구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비수용과 수용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회복탄력성과 인지된 경기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는 수용과 축구형 의사소통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면 비수용과 명령형 의사소통은 회복탄력성과 인지된 경기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이 연구의 제한점과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 의사소통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중간 변수인 회복탄력성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 의사소통은 선수의 긍정심리자본(회복탄력성, 그릿 등)을 형성하여 성공적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Han & Lee, 2017; Park, 2018; Yoon, Choi, & Jang, 2019). 이 연구도 지도자 의사소통은 대학선수의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회복탄력성은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이를 고려할 때 회복탄력성은 지도자 의사소통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매개 또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매개분석이나 조절효과 분석으로 지도자 의사소통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도자 의사소통, 회복탄력성, 경기력의 관계를 질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세 변인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지도자 의사소통이 어떻게 회복탄력성과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의 의사전달 방식(명령, 촉구)은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경청 태도(수용, 비수용)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기인 대학선수의 경우 자아와 가치관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으므로 지도자의 경청 태도가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낮았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가치관이 형성된 대학선수라도 지도자와의 상호관계와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 경기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도자 의사소통이 대학선수의 회복탄력성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변화를 규명하고, 대학 팀 지도자들이 효과적인 지도법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셋째, 독립변수인 지도자 의사소통은 실제 지도자를 대상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지도자 의사소통은 대학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한 것이다. 물론 연구목적과 설계에 따라서 선수들의 지각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 지도자들의 의사소통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예컨대 지도자는 최대한 선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선수는 지도자가 통제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견해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사소통은 지도자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경기력은 선수를 대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후 변인 간 관계는 개인과 집단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는 다층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으로 살펴볼 수 있다.

References

- Bae, J. S. (2023). Sport Commitment in Student-athletes : Examining the Role of Perceived Autonomy Support, a Caring Climate,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34(1), 050-060.
- Brown, C. J., Butt, J., & Sarkar, M. (2020). Overcoming performance slumps: Psychological resilience in expert cricket batsmen.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32(3), 277-296.
- Buning, M. M., & Thompson, M. A. (2015). Coaching behaviors and athlete motivation: Female softball athletes' perspectives. *Sport Science Review*, 24(5-6), 345.
- Cevada, T., Cerqueira, L. S., Moraes, H. S. D., Santos, T. M. D., Pompeu, F. A. M. S., & Deslandes, A. C. (2012). Relação entre esporte, resiliência, qualidade de vida e ansiedade. *Archives of Clinical Psychiatry (São Paulo)*, 39, 85-89.
- Choi, E. C. (2020). The Direction of Korean Sport Reform and the Role of Sport Education - A Thought on the Korea Sport 4.0 led by Sport Education, not Vice Versa -.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27(1), 1-21.
- Choi, M. R. (2022). The Study on Significant others and Resilience of Athlete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20(3), 649-662.
- Choi, M. Y., Lee, C. S., & Yeo, J. K. (2013). The Effect of Dance sport Instructors Professionalism on Self Management, Instructors Trust and Coaching Efficiency.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2(1), 117-134.
- Davis, L., Appleby, R., Davis, P., Wetherell, M., & Gustafsson, H. (2018). The role of coach-athlete relationship quality in team sport athletes' psychophysiological exhaustion: implications for physical and cognitive performance. *Journal of sports sciences*, 36(17), 1985-1992.
- Deci, E. L., & Ryan, R. M. (2012). Self-determination theory. In P. A. M. Van Lange,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pp. 416-436).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Ltd.
- Fletcher, D., & Sarkar, M. (2012). A grounded theory of psychological resilience in Olympic champion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3, 669-678.
- Gullu, S., Keskin, B., Ates, O., & Hanbay, E. (2020). Coach-Athlete Relationship and Sport Passion in Individual Sports. *Acta Kinesiologica*, 14(1), 9-15.
- Gustafsson, H., Sagar, S. S., & Stenling, A. (2017). Fear of failure, psychological stress, and burnout among adolescent athletes competing in high level sport. *Scandinavian jour-*

- nal of medicine & science in sports*, 27(12), 2091-2102.
- Han, Y. I., & Lee, T. H. (2017).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s between the Soccer Coaches and the Players in Terms of the Reliability towards Coaches, Team Cohesiveness, and the Result of the Game.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26(4), 387-401.
- Heo, J. H., Ko, K. H., & Kim, E. J. (2020). Research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 of semi-professional athletes in the workplace.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31(4), 728-744.
- Hill, Y., Den Hartigh, R. J., Meijer, R. R., De Jonge, P., & Van Yperen, N. W. (2018). Resilience in sports from a dynamical perspective. *Sport, Exercise, and Performance Psychology*, 7(4), 333.
- Jang, S. Y., & Kang, H. W. (2019). The Sources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Pro Baseball Players.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4(2), 355-345.
- Jowett, S., Nicolas, M., & Yang, S. (2017). Unravelling the links between coach behaviours and coach-athlete relationships. *European Journal of Sports & Exercise Science*, 5(3), 10-19.
- Kang, S. N., & Jeon, J. w. (2017). Athlete-coach Interaction, Empathy Experie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ceived by Student Athletes on Social Networking Services and Structure of the Offline Athlete-coach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2), 77-100.
- Kim, C. M., Choi, Y. H., & Hwang, S. R., (2022). The Determinants of Taekwondo Athlete Performance: A 2022 National Athletes Perspective. *Korea Society of Martial Arts*, 16(2), 181-210.
- Kim, C. Y., Kim, D. Y., & Nam, K. W.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Coach-Athlete Relationship in Relationship Between Instruct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Exercise Volition of Fencer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7(4), 1319-1327.
- Kim, N. Y., & Kim, J. Su. (2020). The Effect of the Resilience Elasticity of Middle School Soccer Players on Sports Motivation and Sports Achievement-goal.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22(3), 12-19.
- Kim, S. H. (2021).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aches' Authentic Leadership, Resilience and Perceived Performance Perceived by High School TaeKwonDo Players.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23(1), 11-20.
- Kim, S. J., & Kim, S. H. (2019). Relation between Coach-Athlete Interaction perceived by College Taekwondo Players and Leader Trust and Perceived Performance. *The World Society of Taekwondo Culture*, 10(1), 131-145.
- Kim, Y. J., & Bang, E. H. (2022). The effect of Badminton Players Perceived Performance on Self-esteem and Resilience. *Sport Science*, 40(1), 145-153.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Kwak, D. H. (2019). *The effect of taekwondo instructor's communication on college taekwondo athletes's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Yongin University.
- Mamassis, G., & Doganis, G. (2004). The effects of mental training program on juniors pre-competitive anxiety, self-confidence, and tennis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6, 118-137.
- Meggs, J., Golby, J., Mallett, C. J., Gucciardi, D. F., & Polman, R. C. (2015). The cortisol awakening response and resilience in elite swimmer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medicine*, 37(2), 169-174.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Sports Innovation Committee Issues First Recommendation to Eradicate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Sexual Violence*.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269 (2019. 05. 07.).
- Nam, K. W., Lim, Y. J., & Kim, B. J. (2018). The Relationship among Instructor's Communication Types, Exercise Passion and Athletics Performance in Judoka.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20(4), 89-101.
- Ntoumanis, N., Quested, E., Reeve, J., & Cheon, S. H. (2017). Need-supportive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motivation in sport,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In *Persuasion and communication in sport,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pp. 155-169). Routledge.
- Oh, Y. T., & Yang, M. H.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oaching type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Taekwondo athletes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communication in their relationship. *Journal of Marine Sport Studies*, 9(1), 11-21.
- Park, S. M., & Huh, J. Y. (2020). The Difference of Self-management, Athletic Ability Beliefs, and Perceived Performance in Response to the Latent Profile Classification of Resilience of Professional.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9(3), 241-257.
- Park, W. K. (2018). *The Effect of a Coach of Track and Field on Social health and recognized Performance of Track and Field player*.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 Reivich, K., & Shatte, A. (2002). *The resilience factor: Seven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New York: Broadway Books.
- Sarkar, M., Fletcher, D., & Brown, D. J. (2015). What doesn't kill me...: adversity-related experiences are vital in the development of superior Olympic performance. *Journal of Science and Medicine in Sport*, 18, 475-479.
- Seo, D. K. (2013). *A Study on Training Satisfaction based on Communication between College Judo Players and Coaches*.

-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Yongin University.
- Sin, W. Y., Kim, M. G., & Kim, J. H. (2009).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4), 105-131.
- So, Y. H. (2016). Relationship among Self-management, Sports Performance Strategies,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College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65, 215-227.
- Song, E. I., & Lee, J. H. (2018).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by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on Resilience and Exercise Intention.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6(1), 459-468.
- Wachsmuth, S., Jowett, S., & Harwood, C. G. (2017). Conflict among athletes and their coaches: What is the theory and research so far?.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0(1), 84-107.
- Watson, J., Hilliard, R., & Way, W. (2017). *Counsel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n sport and performance psychology*. I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psychology.
- Weinberg, R. S., & Gould, D. (2023). *Foundations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Human kinetics.
- White, R. L., & Bennie, A. (2015). Resilience in youth sport: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gymnastics coach and athlete perce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 Coaching*, 10(2-3), 379-393.
- Witt, P. A., & Dangi, T. B. (2018). Why children/youth drop out of sport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36(3), 191-199.
- Yang, J. E., Shin, J. T., & Kim. (2015). The Effects of a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on Competitive Anxiety, Intrinsic Motivation, Sports Self-Confidence, Performance Strategy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High School Taekwondo Players.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0(2), 147-160.
- Yang, J. Y., Lee, S. I., & Lee, J. H. (2019). The Effects of Resilience Based on Sociality of High School Taekwondo Competition Students on Sports Psychological Technology and Performance. *Journal of Martial Arts*, 13(2), 47-72.
- Yun, S. J., Choi, E. Y., & Jang, T. S. (2019).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emotional regulation, and team effectiveness in field hockey athletes.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33(3), 95-107.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oach Communication, Resilience,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University Taekwondo Student-Athletes

Yang, Yun-Kyung¹ · Kim, Dong-Su² · Jin, Hyeong-Ho^{3*}

1. Kangnam University, Lecturer 2. Dong-A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3. Shinsung University, Lecturer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dentifi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oach communication, resilience,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university Taekwondo student-athletes.

Method Participants were 288 (203 males, 85 females) sparring athletes affiliated with university taekwondo teams.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Firstly, perceived coach communication, non-acceptance and commands had a negative effect on resilience, while acceptance and encouragement had a positive effect. Secondly, resili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performance. Thirdly, non-acceptance and support in coach communic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performance. In contrast, encourag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performance while commands had an negative effect.

Conclusion In order to effectively enhance the resilience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university taekwondo student-athletes, coaches should make efforts to employ supportive and encouraging communication styles. Conversely, non-acceptance and commanding communication should be avoided, as they negatively impact both resilience and perceived competitive performance.

Keywords coach communication, resilience, perceived perform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논문투고일: 2023.07.28.

논문심사일: 2023.08.30.

심사완료일: 2023.09.25.

논문발간일: 2023.09.30.